



부산에서 광주까지 한달여 도보행진 마친 이진섭·군도 父子

사회 냉대·편견 타파 600km 대장정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당당한 미래를

산시 기장군청을 출발한 '군도부부'가 26일 광주시 구 전남 도청에 도착했다. <광주일보 10월 3일 18면>

4세 수준의 정신연령을 가진 군도와 당뇨와 암 투병 중인 아버지 이진섭(47)씨는 그동안 김해-진주-광양-순천-목포-함양 구간을 걸었고 27일 광주시청까지의 마지막 구간을 걸으면 600km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는다.

군도부부는 지난 3월 '시즌 1' 부산서울 600km 도보 대장정을 통해 '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을 이끌어 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들이 시즌 2를 시작한 이유는 발달장애인법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필요성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같은 서비스에 의지한 채 600km 구간을 걷는 일이라 쉽지만은 않았다. 제대로 점비되지 않은 인도가 군도부부를 힘들게 했고 갓 길조차 없는 국도변을 위험천만 걸어야만 했다.

그래도 반가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즌 1을 통해 알아보는 이들이 생기면서 식사 한끼, 음료 한잔을 내어 주기도 했고, 군도 손을 잡아끌며 방을 내어주기도 했다.

이씨는 "새삼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며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준 만큼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도 곧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도부부는 이날 광주시 서구 광동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의 청탁농성장을 찾아 인화학교 사태와 함께 우리 사회의 모든 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이씨는 "부산 사람인 내가 전남을 찾으면서 이곳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느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지자체의 배려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며 "경상도는 시군구마다 장애인을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지만 전남은 여수 단 1곳만이 시범운영중인 현실은 아쉽지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도부부는 27일 오후 1시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발달장애인법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해 지난 9월 30일 부산 기장군청을 출발해 도보로 광주에 도착한 이진섭(사진 오른쪽)·군도 부부가 26일 광주시 동구 구 전남도청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군도는 해운대 가고 싶어요. 바다가 보고 싶어요. 저킨도 먹고 싶고요."

182cm·106kg의 우람한 체격, 하지만 4세 수준의 정신연령을 가진 이군도(19)군이 26일 '도보여행이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뱉은 첫마디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며 '발달장애인 군도와 세상걸기 시즌2'로 지난 9월 30일 부

김제동, 인터뷰집 인세 7천만원 기부



방송인 김제동이 올봄 출간한 인터뷰집 '김제동이 만나러 갑니다'의 인세 7000만원을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한다. 소속사 다음기획은 26일 "인세 1차 전산분 7천만원을 '환상의 짹궁' 기금에 기부한다"며 "김제동 씨가 27일 오후 3시 아름다운재단을 방문해 직접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소후 경제 자립 도와드려요

광주교정청, 구인·구직 만남의 날

또 광주교정청은 귀농, 신용회복, 창업상담 등 출소예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에 필요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만남의 날과 함께 치러진 수형자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에서 압축공기 이용한 목욕탕 청소도구 아이디어를 낸 출소예정자 김모(47)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병철 광주교도소장은 "출소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통한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다가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과자라는 편견 없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2차례 열린 만남의 날을 통해 출소예정자 146명이 취업했고, 이날 12명이 채용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목회·교육·사회봉사 평생 헌신

송의학원 설립 故김신근 목사 평전 출판기념회

했다.

편지작인 김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출판경과 보고에서 "고 김신근 목사는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기독교 위기의 시대에 그 리스도인의 표상이었다"라고 회고했다.

고 김신근 목사는 광복 전후 청년기의 항일, 반공운동을 비

롯하여 일생토록 목회와 교육, 사회봉사에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또, 1952년 송의학사를 세워 불우한 전쟁고아와 청소년들을 양육했다.

1959년 송의학원(송의중, 송의실고)을 설립, 기독교정신 교육과 1인1기 교육을 실천해 수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김일환기자 kih8@

면접기자협 올해의 대상 수상작 선정

한국면접기자협회(회장 이혁찬)는 제17회 한국면접 상 대상 수상작으로 조선일보 박미정 기자의 '서울을 할퀴다'를 선정했다.

박미정 기자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해외시찰 특전이 주어졌다.

또한 최우수상을 차지한 경향신문 임지영 기자의 '어제는 거리에서 잡을 잤다, 오늘은 세상에서 꿈을 꾼다'와 중앙일보 임윤규 기자의 '우즈 위에 웨스트우드'에게도 상금 200만원과 해외시찰의 기회가 함께 주워진다.

한국면접상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은 오는 12월 2일 '면접기자의 밤'에 거행된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최병선씨 장남 경운군 임세빈(광주체육관 관장)씨 장녀 지현양=29일(토) 오후 1시 20분 수와비스웨딩컨벤션(구 경복궁) 1층 로즈홀,

▲정윤택(고속타이어)·신정자씨 차남 대수군 설동산(광주일보 윤전부)·이연순씨 장녀 유진양=29일(토) 오후 1시 천주교 북동성당.

▲최광우(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회계과장)·김정숙씨 장남 훈규군 장양자씨 장녀 순진희양=30일(일) 낮 12시 40분 상무리초컨벤션 웨딩홀 1층 아이비홀.

동창·동문회

▲정광중 31회·고 29회 동창회 졸업 30주년 기념행사(회장 구만본)=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모집

▲행복(happy)한 부부교실=10일(월)~31(월) 동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 오전 7시~9시. 대상은 자녀와 소통하고픈 학부모는 누구나 참여 가능. 광주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이지(<http://hakbumo.gen.go.kr>) 062-605-5738, 5652.

▲광주 콘서버토리에술원 수강생=어린이 성악, 보컬트레이닝, 음대 및 예고 입시교양, 이태리와 독일가곡, 한국 가곡교실 등 배우실 분. 010-9007-2355.

▲리본공예 수강생=취미반, 지역반, 창작 자작증반 수시로 모집 010-9853-2121.

▲어린이재단 전남기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 모집. 061-279-1225~6.

▲동구자원봉사센터 봉사자=이미용봉사·풍선아트·도서관리·각종 프로그램 진행 가능자 062-228-1365.

▲여름방학 자원봉사프로그램 참가자=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참가자. 인권, 환경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학습 및 활동, 초

등학생, 청소년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푸른복지문화센터 무료 수강생=홈페션, 리본공예, 웃음치료, 카라비스, 종이접기, 댄스스포츠 010-9940-1769.

조선대 건축학부(학부장 김의식)는 28일까지 제1공학관 전시실에서 출

부음

▲김치임씨 별세 재호·재진(변호사)·재석(광주북부경찰서장)·재순·영순씨 모친상=발인 27일(목)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장현숙(장현숙) 님(부인) 69세=2011.10.27. 10시 30분

▲장현숙(장현숙) 님(부인) 75세=2011.10.27. 10시 30분